

文대통령 지지율, 48.3%... '막말 논란' 한국당, 30%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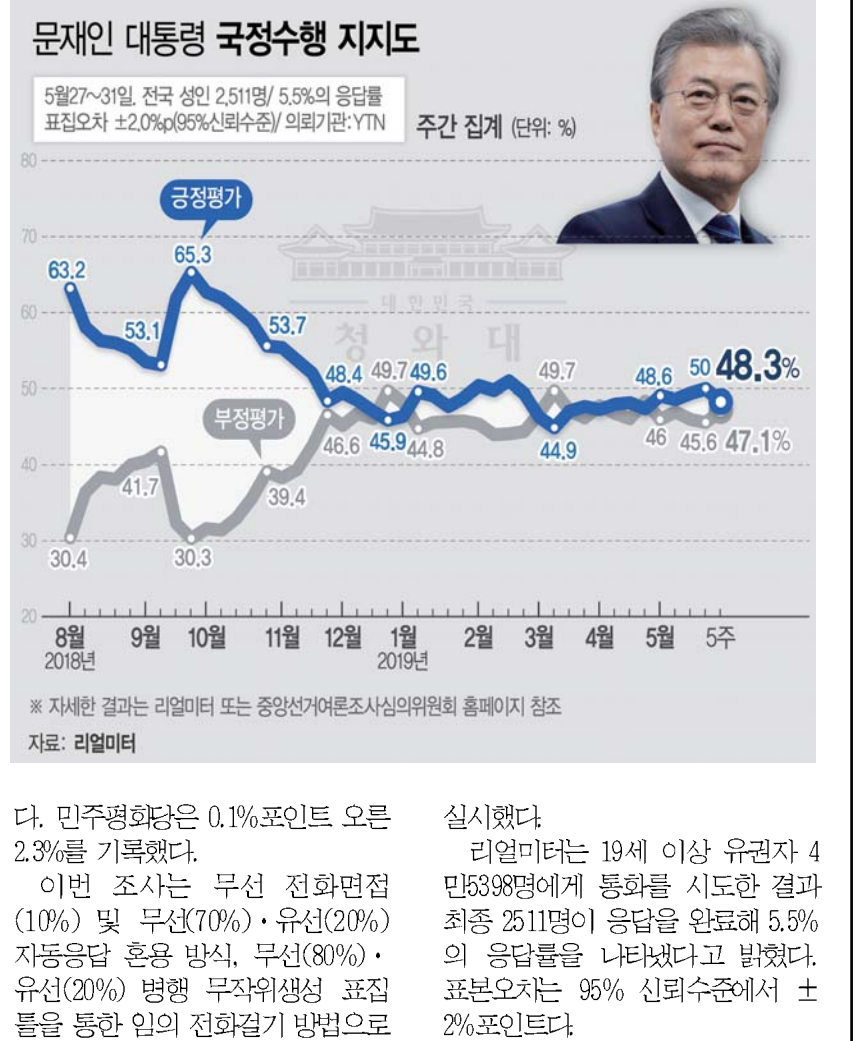
전주 대비 1.7%p 하락...정쟁화 심화되며 상승세 꺾여 리얼미터 “文, 한국당 비판이 보수 결집력으로 작용” 민중, 전주비 1.7%p 오르며 회복...한국, 1.9%p 하락

지난 2주간 일관한 상승 곡선을 그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한미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작성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쟁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5월 5주차(27~31일)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7%p포인트 내린 48.3%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주간의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40%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관련 논란의 정쟁화가 보다 심화되며 최근 악화하던 한국당의 보수 결집력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 불안 등의 보도가 확대된 요인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 계층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호남, 50대와 20대, 진보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경기·인천과 서울, 30대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6.9%→38.0% 부정평가 57.2%), 대구·경북(41.6%→35.6% 부정평가 61.6%), 광주·전라(38.1%→36.5% 부정평가 28.0%)에서 하락했다. 반면 경기·인천(49.8%→51.6% 부정평가 43.8%)과 서울(48.9%→50.1% 부정평가 45.5%)에

선 올랐다. 연령별로는 50대(50.2%→42.9% 부정평가 54.6%), 20대(52.8%→49.6% 부정평가 45.8%)에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30대(57.0%→58.2% 부정평가 38.3%)에선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무직(42.6%→35.3% 부정평가 55.3%), 노동자(51.7%→48.4% 부정평가 48.9%), 사무직(64.6%→61.4% 부정평가 35.6%), 자영업(41.7%→38.9% 부정평가 58.4%), 학생(47.6%→44.9% 부정평가 50.6%)등에서 내렸다. 가정주부(38.5%→42.2% 부정평가 49.7%)에선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7.4%→74.5% 부정평가 23.0%)과 보수층(24.7%→23.3% 부정평가 74.8%)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7%p포인트 오른

41.0%를 기록하며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1.9%p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5월 2주차(34.3%)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 TK와 수도권, 20대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에 대해 일련의 막말 논란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리얼미터 측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여성혐오 발언, 김현아 의원의 ‘한센병 발원’ 등 일련의 막말 논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27 진당대회 전후부터 3개월 동안 지속됐던 가파른 상승세에 뒤따랐던 지적적 조정 효과 등도 중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며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정의당 역시 1.9%p포인트 내린 6.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0.8%p포인트 오른 5.8%로 3주 연속 5%대가 이어졌



文대통령, 강경화 장관에 ‘다뉴브 참사’ 보고 받아...침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헝가리 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다뉴브 참사로 평가받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 지휘 임무 수행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국했다가 지난 1일 귀국했다. 강 장관은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

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총괄했다. 현지에서 헝가리 당국의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 파견된 정부합동진상조사팀의 실종자 수색, 선체 인양, 진상조사 작업 등을 지휘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 및 내무장관을 만나 신속한 수색, 사고 원인 조사, 책임규명, 인근 국가의 국제공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전날 귀국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진화론 헝가리 현지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대면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청와대 방문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 장관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장관은 대통령 대면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중대본 대책회의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나 황망하고 비통해 해서 뒤라위로의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며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파견이 시급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 “우선 헝가리 정부와의 양국 합동 수색 작업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여타 연안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실종자 수색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헝가리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또 막말...한선교, 기자들에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앉아있는 기자들에게 막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당내 막말 논란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막말이 또 터져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민경욱 대변인 발언에 이어 한선교 사무총장까지 가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이라고 말해 불의를 빚었다.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회의가 끝나갈 기다리다가 의원들이 밖으로 나오자 앉은 채 이동한 것을 두고 걸레질로 비유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황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연일 터져나온 막말 논란을 진화하던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막말 논란을 감안한 듯 “우려하는 여당과

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야만성·불법성 등 비인간성만 빼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황 대표가 빠르게 사과했지만, 정 의장은 오히려 왜곡보도를 한 언론을 탓하며 역욕함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본인 말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잘못된 사람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고 말한 것인데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